

토탈 코디네이션 관점에서 본 퍼스널 컬러의 의미

이 연 희

진주국제대학교 미용패션학부 교수

The Meaning of Personal Color in the View of Total Coordination

Lee, Yon-hee

Professor, School of Beauty & Fashion Design, Jinju International University

I. 토탈 코디네이션

1. 토탈 코디네이션이란?

토탈 코디네이션이란 의복류와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간의 총체적 조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의복 아이템간의 조화나 융합을 목적으로 하는 패션 코디네이션과의 차이점을 가진다.

오늘날 사람의 가치평가 기준에서 외모요인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외모장식의 영역 또한 의복류나 장신구가 주된 역할을 하였던 기존의 범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으로 확장되어졌고, 이러한 흐름은 토탈 코디네이션을 21세기적 생활 문화의 한 요소로 자리매김 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토탈 코디네이션에서의 컬러의 의미

코디네이션 또는 토탈 코디네이션의 중요성은 그것들이 사람의 외모를 형성시킴과 함께,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외모장식 수단에서 사용되는 컬러(color)는 이미지 형성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시각적으로 강한 효과를 가진다. 미국의 컬러 이미지 컨설턴트 다나 후지(Donna Fujii)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색과 상반되는 색

들로 외모를 장식하였을 때, 그 사람과 옷 사이의 조화나 균형감이 결여되며, 그 결과 얼굴이 누렇게 떠 보이거나 창백하며, 심지어는 피곤하고, 그늘지거나 거칠게 보이게까지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개인색과 착용색간의 조화와 균형감이 깨어지면 사람보다 옷이 더 부각되어지는 결과를 낳고, 반면에 개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들로 치장한 외모는 그 사람의 본래 이미지와 조화와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착용자를 더욱 더 상큼하고 밝게, 그리고 생동감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게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생활의 각 영역에서 컬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지만, 우리는 그것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인체에 직·간접적인 장식 수단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컬러들이 개인 이미지형성에 미치는 효과는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토탈 코디네이션 연출에서 컬러 선택은 그것이 '개인의 개성과 특징에 맞게 활용되어졌는가?'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외모장식에서 사용되는 컬러가 개인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기도 하지만, 오히려 본래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모장식을 위한 토탈 코디네이션 연출과 개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이미지 메이크업과 관련된 각 분야에서 퍼스널 컬러분석과 이에 따른 개인색 활용은 헤어미용, 메이크업, 패션 연출 등과 같은 외모장식관련 학계와 산업계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 Lee, Yon-hee
E-mail: yh8170@hanmail.net

II. 퍼스널 컬러

1. 퍼스널 컬러란?

흔히 개인색이라고 일컬어지는 퍼스널 컬러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을 의미한다.

퍼스널 컬러는 피부색, 머리색, 그리고 눈동자색 등으로 결정되는데, 이들 세 요소 중 피부색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람의 피부색은 3가지 색소 즉, 갈색의 멜라닌, 빨강의 헤모글로빈, 노랑의 카로틴 성분 에 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흑인종은 멜라닌, 백인종은 헤모글로빈 그리고 황인종은 카로틴 색소의 함유량이 다른 색소에 비하여 많다. 동일인종이라 할지라도 피부색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이들 3가지 색소가 각각 어느 정도의 양으로 구성되어있는지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피부색이 비슷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인색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피부색 이외에 머리색, 눈동자색, 그리고 이들 각각의 대비 정도에 따른 것이다.

2. 퍼스널 컬러 이론

퍼스널 컬러 연구와 활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체계화 된 곳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민족이 공존하는 미국 사회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의복이나 화장품 산업에서 이들 각 민족의 특성에 따른 각종 컬러 제품의 제공은 관련 산업의 효과를 최대화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그들의 피부색이나 머리색에 근거한 올바른 제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의복 아이템 간의 조화를 시도하는 코디네이션 룩이 미국인들의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당시 새로운 전문직으로 부상한 이미지 컨설턴트들로 하여금 퍼스널 컬러에 대한 연구와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퍼스널 컬러가 미국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된 것은 1980년 미국의 캐롤 잭슨(Carole Jackson)이 출판한 'Color Me Beautiful'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 책은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반응을 거둔데 이어, 1980년대 후반 유럽의 여러 나라와 일본까지 전하여짐으로써 세계여성들의 의복과 화장, 헤어컬러 선택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퍼스널 컬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미용관련학과의

교육과정 방향의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기존 미용교육이 미용과 보건과의 접목이었다면,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의상·미용·보건과의 융합을 꾀하는 교육과정이나 학과개설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미용학계의 새로운 움직임은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토탈 패션 연출관련 선진교육을 받은 교수들의 영입으로 이어지면서, 미용관련 학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퍼스널 컬러 분석과 활용을 위한 과목의 개설과 함께, 외국의 전문 컨설턴트들을 초청한 특강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는 미용학과는 물론 의류관련 학과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Color Me Beautiful' 이후 2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퍼스널 컬러 분석과 활용에 관한 방법론들은 캐롤 잭슨의 이론이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컨설턴트에 의한 이론이 국내에 소개되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컨설턴트들의 활발한 활동은 1991년 Donna Fujii의 Color With Style, 1995년 Mary Spilane·Christine Sherlock의 Color Me Beautiful's Looking Your Best, 1997년 Doris Pooser의 Always in Style 등의 출판으로 이어졌고, 저자들은 책을 통하여 새로운 퍼스널 컬러 이론과 그것에 근거한 토탈 코디네이션 연출의 다양한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중 Donna Fujii는 Color With Style에서 그동안 다소 제한적이었던 기존의 퍼스널 컬러 이론의 한계를 극복시키고 있는데, 특히 분석 방법과 인종별·개인별 분류기준, 그리고 적용방법 등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최근 연구들의 근간은 캐롤 잭슨의 사계절 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피부톤의 한난(寒暖)과 머리색의 농담(濃淡) 정도를 개인색 분석의 가장 기본적 자료로 활용하는 캐롤 잭슨 이론은 후속이론들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퍼스널 컬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하여 캐롤 잭슨의 이론과 그것을 보다 체계화 시킨다나 후지(Donna Fujii)의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III. 캐롤 잭슨과 다나 후지의 퍼스널 컬러 이론

1. 캐롤 잭슨의 이론

1990년대까지 퍼스널 컬러 분류 기준의 정설로 되어있었던 캐롤 잭슨 이론은 흔히 사계절 론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사계절 론이란 개인색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의 범주에 두고, 이들 각 계절에 따른 활용색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 ‘Color Me beautiful’이라는 강좌를 통하여 캐롤 잭슨은 수강생들의 개인색 분석과 그에 따른 활용색 범위를 선정하였는데, 개개인의 유전인자가 가지는 특성에 의하여 그 범주를 사계절로 나누고, 네 가지의 범주 중 어느 한 곳에 개인이 속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개개인의 유전인자라 함은 피부색, 머리색, 눈동자색 등을 말한다.

캐롤 잭슨 이론의 특징은 우선 피부색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파악하여, 따뜻한 느낌의 피부이면 가을과 봄, 차가운 느낌이면 겨울과 여름으로 분류하고, 이들은 다시 머리카락 색의 조건에 따라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로 분류하는 것이다.

캐롤 잭슨 이론의 한계점은 그것이 인종과 민족에 따라서 확연한 컬러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적합하지만, 비슷한 고유색의 조건을 가진 국가와 민족에게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더욱이 4가지 범주 안에 개개인의 다양한 조건을 적용시키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2. 다나 후지의 이론

다나 후지는 캐롤 잭슨의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코카시안(caucasian), 아시안(asian), 히스패닉 hispanic), 흑인(black)여성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기본으로 한 분류법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론은 캐롤 잭슨의 사계절, 즉 두 종류의 따뜻한 색과 두 종류의 찬색 컬러 그룹에 근거하였지만, 각 인종과 개인별 특성에 맞도록 좀 더 세분화 시켜 25가지로 분류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1978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컬러와 이미지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다나 후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퍼스널 컬러 분석 작업 과정을 통하여 이에 관한 새로운 방법론 정립의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그동안 퍼스널 컬러 분석에서 간과되어져왔던 피부색과 머리색의 대비 정도가 활용색 선택의 중요 지침이 된다는 인식은 십여 년 동안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1991년 ‘Color With Style’을 통하여 각 인종별 피부색과 머리색의 특징, 그리고 두 요소간의 대

비 정도에 따른 분류법 제시로 자신의 이론은 정립시켰다.

다나 후지 이론의 또 다른 특징은 퍼스널 컬러 분석과 활용을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 사계절 론은 대부분의 아시아인과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 여성들을 겨울과 가을의 범위 안에 두었는데, 실제로 아시안·흑인·히스패닉 여성들의 피부색은 밝은 도자기 색부터 올리브, 블루 블랙까지이고, 반면에 그들의 머리색은 은회색부터 갈색, 검은 갈색까지의 빛을 자아낼 정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계절에 한정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 인종별·개인별로 세분화시킴으로써 퍼스널 컬러 분석의 방법과 활용법을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나 후지 이론과 캐롤 잭슨, 그리고 1990년 이후 등장한 다른 이론과의 또 다른 차이점은 눈동자색에 대한 고려이다. 대부분의 이론들에 따르면 퍼스널 컬러 분석에서 피부색과 머리색, 그리고 눈동자색은 기본적 요소가 되지만, 다나 후지는 눈동자색이 얼굴이나 머리에 비하여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의복색과의 조화나 동공확장을 위한 다양한 컬러 렌즈 착용자가 많기 때문에 퍼스널 컬러 진단에서 크게 고려할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아시안과 히스패닉 처럼 갈색 또는 어두운 갈색과 같은 자연색에 가까운 눈동자 색은 영향력이 거의 없음을 밝히고 있다.

IV. 토탈 코디네이션 연출을 위한 퍼스널 컬러의 분석과 활용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퍼스널 컬러는 의복류와 장신구, 메이크업, 머리색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외모를 장식하는 토탈 코디네이션 연출을 위한 모든 요소에 적용되어진다.

퍼스널 컬러의 정확한 분석과 활용은 컬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더욱이 교육 현장에서의 퍼스널 컬러 교육은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체계적이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하여 색채 기초와 활용 특히 조색(調色)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선행학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다나 후지의 강의는 마젠타(magenta), 사이안(cyan), 노랑(yellow)의 세 가지 원색과 여기에 검정과 흰색에 의한 컬러 톤의 변화, 그리고 이들 색으

로 다양한 피부색과 활용색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강의 방식은 대다수의 국내 대학에서 행하고 있는 컬러 교육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혁신적인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컬러 교육이 시도되고 있기도 하지만, 초·중·고교의 미술교육에서부터 색채교육의 한계성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색채교육의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상이나 미용분야의 전공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색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원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 학과나 전공에서의 색채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의 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퍼스널 컬러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의 올바른 활용이 이루어질 때이며, 활용은 또한 올바른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이제 퍼스널 컬러는 단지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라, 개인 이미지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위한 관련 학계나 산업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토탈 코디네이션의 시작은 관점에 따라서 의복이 되기도 하고 메이크업이나 머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꼭 주지하여야 할 사항은 이들의 유기적인 조화가 무시된 연출법은 진정한 토탈 코디네이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퍼스널 컬러 분석의 기초 자료가 피부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토탈 코디네이션에서 메이크업의 역할 또한 가늠될 수 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웰빙(well-being)이라는 신조어를 등장시켰다. 현대사회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이 화두는 메이크업에서도 기존의 자연주의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 즉, 기초화장품만 바른 피부에 화운데이션은 생략하고 파우더를

바로 바름으로써 본래의 피부 톤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화장법이 그것인데, 이러한 흐름은 트렌드 지향적이고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는 계층들에게 퍼스널 컬러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게 될 전망이다.

나아가 오늘날 일반화된 머리 염색에서, 개인의 피부색에 근거한 헤어컬러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이너의 역량이 갖추어진다면 고급미용문화 시대에 적합한 전문디자이너로서의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다. 유행색이 갈색이어서, 또는 동류 집단에서 원색적인 머리색을 한다고 하여 그것을 따르던 관행은 이제 무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신 고객의 또는 나의 고유색에 적합한 머리색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개성적이고, 개인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연출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의복류는 외모장식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컬러 선택에서도 퍼스널 컬러가 강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퍼스널 컬러의 가치는 교육현장에서의 올바른 전달과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통하여 평가되어질 수 있을 것이며, 양자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때 그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Fujii D. (1991). Color with Style. Tokyo: Graphic-Sha.
- 2) Jackson C. (1984). Color Me Beautiful. NY: Ballentine Books.
- 3) Kim J. G. and Stone J. (2002). What should I wear?. NY:Knopf Inc.
- 4) Pooser D. (1997) Always in Style. CA: Crisp Pub.
- 5) Spillane M., and Sherlock C. (1995). Color Me Beautiful's Looking Your Best. NY: Madison Books.